

보도	2024.12.11.(수) 조간	배포	2024.12.10.(화)		
담당부서	금융사기대응단 금융사기대응총괄팀 금융사기대응2팀	책임자	팀 장	정재승	(02-3145-8130)
		담당자	수석조사역	김병진	(02-3145-8522)
		책임자	팀 장	이환권	(02-3145-8521)
		담당자	선임조사역	윤형석	(02-3145-8534)
	경찰청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	책임자	총 경	안찬수	(02-3150-0141)
		담당자	경 정	백의형	(02-3150-2782)

**고령층을 대상으로 범죄에 연루되었다며
거액 주택담보대출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!!!**

■ 소비자경보 2024 - 35호

등급	주의	경고	위험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		

소비자경보 내용

- ◆ 최근 사기범들이 **고령층을 대상**으로 카드 오발급 등을 빙자하여 접근, 범죄 연루 여부 확인 등을 위해 **필요하다며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주택 담보대출을 받도록 유인**한 후 해당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써
- 금전적 피해는 물론 **담보로 제공된 노후 자산까지 잃게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**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
- ⇒ 검찰·금감원 등 **국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에게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지 않음을 꼭 기억**하세요!

〈대출을 증용하여 편취하는 주요 수법〉

- I.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대출을 지급정지했으나, 혹시 모르니 대출 신청을 해서 조치가 확실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이는 불법자금으로 국고에 환수되어야 한다며 대출금을 요구
- II. 피해자 계좌가 부정사기 대출에 연루되었으니,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 정상 대출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금을 요구

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

- 최근 정교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다단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고령층 등의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
 - 특히, 중요 노후 자산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후 편취함으로써 노후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

2 시나리오 단계별 사기 수법

- (1단계: 기망)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은 카드 등을 미끼로 **개인정보 유출, 명의도용** 등을 언급하면서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기망

※ 기망 수법 예시

- ◆ 사기범은 카드 배송원, 카드사 상담원, 금감원 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기망
 - (카드 배송원) “카드 발급 신청하신 적 없으시다고요? 안내해 드리는 카드사 번호로 연락하세요. 070-XXXX-XXXX”
 - (카드사 상담원) “고객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명의가 도용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.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온라인으로 피해구제를 접수해야 하니 보내드리는 문자메시지 링크를 클릭하셔서 앱*을 설치하세요”
 - ※ 악성 앱이 설치되면 해당 휴대폰을 이용한 통화는 사기범에게 연결되므로 이후에는 반드시 유선 전화 혹은 지인의 휴대폰으로 통화할 필요
 - (금감원 직원) “선생님 ○○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현재 □□지검 ◇◇◇ 검사님이 수사 중이시네요. ◇◇◇ 검사님에게 전화해보세요”

- (2단계: 공갈) 범죄 연루, 구속 수사 및 기밀 유지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감 및 사회적 고립감을 이용하여 공갈

※ 공갈 수법 예시

- 사기범은 구속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겁박한 뒤, 수사 기밀을 강조하면서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킨 다음 구속을 면하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며 공갈
 - (검찰) “범죄 피해금액은 수억 원이고, 피해자는 수십 명이에요. 사안이 심각합니다.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하니 여벌 옷 챙기세요.”
 - (검찰) “수사는 절대 기밀 사항이고 시키는 대로 협조하면 약식으로 수사할 테니 자금조사 절차에 절대적으로 협력하세요.”

- (3단계 : 편취) 자금조사, 자산 보호 절차 등을 명목으로 자산을 현금화 하여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, 이 과정에서 대출도 중용

※ 편취 수법 예시

- 사기범은 불법자금 조사에 필요하다거나, 개인정보 유출로 자산이 편취될 위험이 있으니 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금을 편취
 - (금감원 직원) “선생님이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고 그러려면 선생님 자금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”
 - (금감원 직원) “부정사기 대출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하여 정상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”
 - (금감원 직원) “개인정보 유출로 범죄조직이 선생님 재산을 다 빼앗아 갈 우려가 있습니다. 지금 당장 제가 알려드리는 국가안전계좌로 모든 재산을 자금화하여 이체하셔야 합니다”

3 시나리오 단계별 소비자 행동 요령

※ 통화 시 아래 **키워드**가 들리면 무조건 의심하시고, 대응 요령을 숙지하여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평소에 꼭 기억하세요!!!

□ (1단계 : 기망) **키워드** 개인정보 유출, 명의도용

- (대응 요령) 출처가 불분명한 URL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, 본인 명의 카드발급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카드사 연락처는 카드사 혹은 여신금융협회*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대표번호로 연락하세요!

* crefia.or.kr → 회원사 정보 → 회원사 안내 → 신용카드사

□ (2단계 : 공갈) **키워드** 범죄 연루, 구속 수사, 기밀 유지

- (대응 요령) 통화한 직원의 이름, 소속, 직위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시고 전화를 끊으신 후 유선 전화 혹은 지인의 휴대폰*으로 소속 기관 홈페이지의 대표번호로 전화하시어 해당 직원의 연결을 요청하세요!

* 피해자 본인의 핸드폰은 악성 앱 등 설치로 다시 사기범으로 연결될 우려

□ (3단계 : 편취) **키워드** 자금조사, 자산 보호

- (대응 요령) 국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조사, 자산 보호 등을 명목으로 국민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대출*을 받도록 유도하지 않으니, 이러한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!

※ 악성 앱 설치 등으로 개인정보가 탈취되어 본인도 모르는 대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「여신거래 안심차단」 서비스 신청을 통해 원하지 않는 대출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

※ 「여신거래 안심차단」 서비스

- ◆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대출로 금전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「여신거래 안심차단」 서비스를 출시('24.8.23.)
- 동 서비스 출시 후 약 1개월 간의 이용 실적을 보면 대출 수요는 낮으면서 보이스피싱에는 취약한 60대 이상 고령층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
 - 금융소비자는 은행, 저축은행, 농·수협, 새마을금고, 신협, 산림조합, 우체국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전문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*
- * 신용정보 법령상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집중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는 제외